

향교소장 일제강점기 문헌 자료의 조사 현황과 과제*

장순순**

〈 목 차 〉

1. 머리말
2. 일제강점기 향교연구의 현황
3. 향교소장 문헌자료의 현황과 특징
 - 3.1. 자료의 현황
 - 3.2. 자료의 특징
4. 향후 과제와 방향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의 건국을 주도했던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한 사회개혁을 달성함으로써 새로운 통치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유교 풍속을 사회 전반에 보급함으로써 도덕적 이상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학교를 교화의 근본으로 삼고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중앙에는 성균관을 전국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하고, 문묘(文廟)를 설치하였다.¹

조선시대 향교는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과 사회교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공교육 기관으로 출발했으나 후기에 오면서 관학(官學) 즉, 공교육기관으로서 기능보다는 유교선현에 대한 향사(享祀) 기능이 중심이 되었고, 지방 유림들의 집결장소이자 향론(鄉論)을 주도하는 중심처로 기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 45347).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hyongae@hanmail.net

1 고려시대에는 유교가 정치 방법적인 면에 국한하여 작동된 것이라면, 조선시대에는 관혼상제, 충신·효자·열녀 등을 장려하여 旌表하는 등 민풍의 심층에 이르기까지 작동함으로써 교화를 전제로 한 성리학적 이념을 구현하게 된 것이다. 그 국가 구성원에 대한 교화의 중심에 향교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향교는 조선 왕조의 사회개혁 시스템의 중심축이었다고 할 수 있다(장순순 2020: 12).

능하며 존속하였다. 1863년 고종이 즉위 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향교의 교육적 기능은 일시적으로나마 부흥의 기회를 갖기도 하였으나,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철폐되면서 그 기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근대에 들어와 일제에 국권이 침탈된 이후에도 향교는 여전히 존속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강점 후 그들의 ‘효과적인’ 식민지통치를 위해 유교를 적극 이용하였다. 유교가 여전히 조선인들의 정치·사회·문화 이데올로기를 지배하고 있고, 국민 윤리도덕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고,² 양반유림 세력의 영향력이 조선에서는 쇠퇴하고 있다는 하나 영향력은 여전히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 양반유림들은 여전히 중앙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계층이었고 향촌사회의 지배자였으며, 향촌사회의 자치와 문교(文教)·덕풍(德風)·산업의 중심세력으로서 실질적으로 조선을 지배하는 세력임을 인식하였던 것이다(류미나2010a: 166; 이명화 1993: 88). 그래서 총독부는 향촌 사회에서 지역 유림 집단의 집합체로서 존재하면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주도해 온 향교에 주목하여 그 운영에 적극 개입하고, 식민지 지배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234개의 향교가 존재한다.³ 향교의 문묘에서 거행되는 정기적인 제향으로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실시하는 분향례(焚香禮)와 유교 선현에게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거행하는 석전이 있으며,⁴ 비정기적인 제향으로는 고유례(告由禮), 문묘 수리 등으로 위패를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복구시킬 때 올리는 이안례(移安禮) 또는 환안례(還安禮) 등이 있다. 이러한 유교 제향들은 현재도 전국 각지의 향교에서 여전히 거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충효교실’, ‘선비교실’, ‘문화탐방’, ‘유교아카데미’, ‘청소년 인성교육’, ‘기로연’, ‘전통성년례’ 등 유교 이념을 통한 사회교화를 지향하는 각종 행사가 오늘의 향교에서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향교는 현재에도 우리 곁에서 ‘살아있는 유교문화의 장(場)’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향교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작동되는 유교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향교에 관한 선행 연구는 조선후기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한국의 유교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대, 특히 일제강점기의 향교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드물다. 이러한

2 조선통독부의 유교활용에 대해서는 류미나(2010a), (2019), 정옥재(2016), 이명화(1993), 서동일(2019) 등을 참조.

3 성균관에서 발간한 儒林手冊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향교는 서울특별시 1개소, 부산광역시 2개소, 대구광역시 3개소, 인천광역시 4개소, 광주광역시 1개소, 대전광역시 2개소, 울산광역시 2개소, 세종특별자치시 2개소, 경기도 25개소, 강원도 16개소, 충청북도 18개소, 충청남도 34개소, 전라북도 26개소, 전라남도 28개소, 경상북도 40개소, 경상남도 27개소, 제주특별자치도 3개소로 총 234개소가 있다.

4 김해향교의 경우처럼 석전을 음력 8월에 한 번만 하는 향교도 있으나 대부분의 향교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석전을 봉행한다.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관련 자료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유교 및 유교문화, 향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향교자료의 시급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점에 주목하여 일제강점기 근대 향교자료의 전체적인 현황조사의 출발로 현재 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의 현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료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자료의 보존과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향후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일제강점기 향교연구의 현황

조선 초기 ‘일읍일교’의 원칙에 따라 설립된 향교는 해당 군현과 그 운명을 같이 했다. 군현이 신설되면 곧바로 향교의 건립이 뒤따랐으며, 군현이 폐치되면 향교도 폐교되었다. 조선시대의 마지막 향교의 건립은 1901년에 있었던 통영향교와 오천(鰲川)향교이다. 통영향교는 1900년 고성으로부터 진남군(鎭南君)이 독립함에 따라 이듬해 건립되었고, 오천향교는 충청수군절도사영(忠淸水軍節度使營)이 폐지되고 충청남도에서 오천군이 신설되면서 건립되었다.⁵

조선시대 향교는 일제의 지방제도 개편으로 그 수에 조정이 있었다. 1914년 개편으로 기존의 12부 317군 체제에서 1부 121군으로 통폐합되고, 1부 24군이 신설됨으로써 12부 220군으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부·군(府郡) 통폐합으로 1개의 부·군에 2개 또는 3개의 향교(문묘)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폐지된 군의 향교는 다른 향교에 통합되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로써 1918년 총독부가 조사한 당시 향교의 수는 335개였고, 이듬해인 1919년에는 349개, 1928년에는 329개소였다(김명우 2008: 35; 村山智順 1938: 33-45).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반드시 지켜진 것은 아니다. 조선총독부, 『경학원서류』(1920-1927년, 576-577)나 향교재산관계 문건 등을 보면 경북·함남·함북·평남 등 4개도에서는 1부·군 1교의 원칙에 따라 향교가 정리된 반면, 기타의 도에서는 1군내 수개의 향교가 존립한 채 대부분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폐군된 향교의 존치 여부는 그 지방의 상황에 따라 각 도당국

5 김명우는 현대에도 향교가 건립되고 있는데, 漆原鄕校(1961년)나 마산향교(1993년)는 폐지되었던 향교를 복원한 것이고, 새로 창건된 향교로는 경남 합천군 합천리에 위치한 江陽향교와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에 위치한 東海향교가 있다고 하였다. 강양향교는 합천향교가 1991년 수해를 입어 야로면 구정리로 옮겨지게 되자 1965년 합천면·용주면·율곡면·대양면의 유림들이 지금의 자리에 새로 건립한 향교이고, 동해향교는 1980년 4월 1일자로 묵호읍과 북평읍이 동해시로 승격한 이후 1999년에 창건되었으며, 현존하는 (남한의) 234개 향교 중 마지막으로 건립된 향교라고 하였다(김명우 2008: 33).

의 방침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민족분열정책을 실시하면서 유림들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폐치된 부군의 향교(문묘)에 대해 부활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1920년 8월에 경북의 13군에서 18개 향교가 부활되었으며, 1922년에는 능주·동북·지평(砥平)·창평·돌산·낙안·남평향교 등이 복설되어, 1924년에는 전국에 324개의 향교가 존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조선총독부학무국 1924: 3-20). 한편 김명우는 각 향교에서 춘추로 거행하는 석전 상황을 중앙의 경학원에 보고하는 자료를 검토하여 1940년을 전후한 시기의 전국 향교 현황을 표로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1940년에는 327개의 향교가 존속하였다고 한다(김명우 2008: 33-35).

일제강점기 향교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에서야 시작되었고, 그 수도 대단히 적다. 1980년~2020년까지 향교를 독립 주제로 한 연구는 총 15건이다.⁶ 1980년대 향교를 독립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는 1편이다. 김남석의 연구로(김남석 1989), 조선총독부의 교화기관으로 설립된 도서관과 향교재산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유림을 비롯한 지역유지의 회유와 협력을 어떻게 끌어냈는지를 규명한 연구이다. 일제강점기 향교를 주제로 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화되었다. 강대민은 *한국의 향교연구*(1992)에서 “한말 향교유림의 동향”이라는 주제 안에서 일제하 향교 운영과 유림조직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지만, 그 내용이 간략하고 개략적으로 언급된 감이 있다. 그러나 강대민의 연구는 일제강점기 향교를 다룬 초기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8년에 김명우의 박사학위논문인 *일제 식민지시기 향교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일제의 향교정책, 향교 직제의 변화, 향교재산의 운용과 향교 기능의 변화 등을 다루었다. 김명우의 연구는 일제강점기 지방 향교 기능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00년 이후 향교 연구는 2000년 후반에 4편, 2010년 중후반에 5편이 발표되었다. 2020년에는 3편이 발표되었다. ① 향교재산에 관한 연구, ② 향교 직제에 관한 연구 ③ 향교소장 문서를 활용한 연구 ④ 향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유림들의 동향에 관한 연구 ⑤ 향교석전에 관한 연구 ⑥ 향교 관련 자료집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향교재산에 관한 연구로는 김정인(2006)의 연구, 김순석(2014)의 연구, 김덕진(201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정인과 김순석의 연구가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중심으로 한 연구라면, 김덕진의 연구는 고종향교 존성계의 「존성계안(尊聖契案)」을 활용한 것이다. ② 향교 직제에 관한 연구는 김명우(2007)의 연구가 있으며, ③ 향교소장 문서를 활용한 연구로는 권익산(2006)과 서동일(2019)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향교 소장 문서를 1차 사료로 활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서동일의 연구는 함양향교에 소

6 본고에서는 각 향교에서 출간한 ‘향교지’들은 제외하였다.

장되어 있는 일제강점기 문서군 가운데 중일전쟁 발발 직후 경학원과 향교의 시국대처 상황을 잘 보여주는 1937년 공문철을 활용하여 총동원체제가 식민지 조선의 지방 향교에 미친 영향을 살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92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총독부(경학원)는 지방 향교에 단기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렸고, 함양향교에서는 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총동원체제가 향교의 의례와 지방 유림조직의 재편,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식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④ 향교를 중심으로 지역 유림들의 동향을 연구한 것으로는 안세현의 (2019a), (2019b)가 있으며, 향교에서 거행된 석전에 대해서는 장순순(2020)의 연구가 있다. 기존 연구가 경학원 석전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⁷ 장순순의 연구는 향교의 석전이 식민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용되어갔는지를 살핀 것이다.

2020년 향교연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일제강점기 향교관련 자료 등을 목록화한 목록집과 자료집의 본격적인 출간이 있었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 중앙기관의 향교관계 문서·기사목록과 일제강점기 향교관계 자료와 기사목록*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의 성과로 1905년부터 1945년까지 향교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전자는 조선총독부 등 중앙기관 및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를 비롯하여 *조선총독부관보*, *경학원잡지* 등 공적 성격을 띤 매체의 기사들을 대상으로 목록화한 것이다. 전자가 공적 성격을 띤 ‘중앙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후자는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후자에서는 또한 일제강점기 향교 조직의 운영 및 실태를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관련 법령, 현재 향교 소장 문서를 목록화하고 주요 향교자료의 실례를 번역·소개하였으며, 동시기 발행된 민간신문의 향교 기사도 목록화하여 소개하였다.

이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제강점기 향교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향교가 조선총독부의 말단조직이자 경학원의 하위기관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총독부의 식민정책이나 경학원의 지시를 전달받고 단순히 이행하는 기구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 결과 향교는 경학원에 관한 연구나 일제강점기 유림세력의 동향과 개편 등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던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⁸ 또한 조선시대 향교 문서와 달리 일제강점기 향교 문서는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서 그 숫자가 매우 적고, 있더라도 목록화 등도 되어 있지 않아 자료에 접근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일제강점기에 향교를 기반으로 활동한 인물(直員·장의·유림)들의 일기가 거의 발견되지 않은 점도 또 다른 단점이다(서동일 2019: 430-431). 따라서 조선후기 → 근대 → 현대

7 경학원 석전에 관한 연구로는 김영희(2008), 장진영(2014) 등이 있다.

8 유림세력의 동향과 개편에 관한 논의 중에서 향교에 대해 언급한 연구로는 정경주(1990), 이명화(1993), 정일균(2007), 류미나(2005), (2007), (2010a), (2010b), 정옥재(2009), (2014) 등을 들 수 있다.

이어지는 유교문화의 상징인 향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향교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자료 조사가 시급하다.

3. 향교소장 문헌 자료의 현황 및 자료의 특징

3.1. 자료의 현황⁹

전주대 HK+연구단에서는 2018년부터 근현대 유교문화 관련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오늘날 향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현대 문서 자료를 조사해왔다.¹⁰ 이를 토대로 현재 향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헌 자료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향교별 소장 문헌자료

향교명	강릉	기장	남해	돌산	동래	순천	익산	춘천	칠곡	함양	계(%)
향교 재산	14	135		24		406	49			9	637 (35.2)
향사	148	66		28			204			83	529 (29)
강회 (講會)	7										7 (0.4)
명부 (名簿)		23		51			31				101 (5.6)
향교 수리	8	4	24			1	6				43 (2.4)
회의		6		2			25				33 (1.8)
유림 조직				40	22		62	1	5	36	166 (9.1)
규정	12						21				33 (1.8)

9 본절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이하 전주대 HK+연구단)에서 2018년~2029년까지 실시한 향교소장 자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일제강점기 향교관계 목록과 주요 자료의 총론을 참조하여 보완·기술하였음을 밝혀둔다.

10 각지의 향교를 방문해서 소장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목록집 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향교 소장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각 지자체나 지역 대학 박물관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 등을 통해서 지극히 단편적인 파악에 그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역 연구자들과 접촉하거나 직접 향교를 방문하는 등 공식,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대략적인 소장 정보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2018년부터 지역의 향교소장 자료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COVID-19로 2020년에는 조사가 중단되어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대신 경상북도의 칠곡향교 자료와 익산향교 자료는 개인소장자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보완하였다.

기타	15	11		27	5	3	116	1	72		250 (13.8)
계	204 [3]	247 [12]	24 [2]	172 [14]	27 [5]	410 [2]	514 [27]	2 [1]	77 [1]	128 [6]	1,805 [72] (100)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에서 2018년~2020년에 조사한 것을 세부문서로 분류하여 작성한 것임.

** 비교의 [](대괄호)는 문서철 수를 의미함.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일제강점기 문서자료는 총 1,805건(73종의 문서철)이다.

먼저, 강릉향교에서는 204건의 문서(3종의 문서철)가 확인되었다.¹¹⁾ 강릉향교 소장 문서는 석전 즉 향사에 관한 문서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석전에 필요한 물품의 조달을 비롯하여 석전 준비에 관한 내용과 향교 건물 수리에 관한 것을 강릉향교 직원이 향교재산관리자였던 강릉군수에게 보고한 것이다. 그리고 공자 탄생 2479년을 기념하여 1928년 행해진 강회(講會)에 관한 자료가 눈에 띈다. 이 자료는 강회 전체 진행의 모습을 잘 정리해 놓은 것으로, 근대 이후 향교가 강회 등을 통해서 유교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시사한다.

기장향교에는 12종의 문서철, 264건의 근대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향교재산 문서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그 가운데 향교토지 관련 문서가 116건 소장되어 있다. 향교답의 소작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향사에 관한 문서가 66건이며, 향교 건물 수리비용 조달에 관한 문서인 『대성전수습찬성록(大成殿修葺贊成錄)』, 향교회의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의안(議案)』, 직원(直員)·장의(掌議) 등 기장향교 운영의 구성 및 변경을 파악할 수 있는 『직원록』 등이 있다.

돌산향교 소장 문서에는 172건의 문서(14종의 문서철)가 있는데, 명부류(名簿類) 및 계(契)와 관련된 다양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명부류는 1898년부터 1986년에 이르기까지 향교의 운영 주체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 『경임안(經任案)』과 석전 참여자 명단, 그리고 유림회원 명부, 유림들이 향교를 기반으로 조직한 존성계(尊聖契), 돌산유림계(突山儒林契), 돌산창선계(突山彰善契) 등이다. 그리고 황해도유도연합회에서 1943년에 발간한 『황도유경(皇道儒經)』이 소장되어 있다.

순천향교에는 향교재산 관련 문서가 주로 남아 있다. 2종의 문서철 410건의 문서이다. 410건

11 강릉향교의 경우는 이외에도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향교관련 1차문서가 다수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4월 19일 강릉향교와 성균관 유도회 강릉지부를 방문했을 당시 향교관계자로부터 “현재 정리 중이므로 자료의 전체 열람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강릉향교에서는 향교 소장 자료 및 유물을 보관·전시할 수 있는 자체 박물관의 건립을 계획 중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방문 당시 향교 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일부 자료만을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 목록은 당시 직접 열람한 것이다.

가운데 406건이 향교답을 소작하는 소작인들과의 계약관계를 기록해 놓은 소작료 실지조사부(實地調査簿)이다.

익산향교와 관련해서는 27종의 문서철, 514건의 문서를 조사하였다. 익산향교 관련 문서는 현재 향교 소장 문서가 아니라 개인 소장자를 통해서 조사한 것이다.¹² 익산향교 자료는 문서철의 수뿐만 아니라 문서 성격의 다양성, 특히 중앙의 경학원(총독부)과 지방 향교 간에 주고받은 왕복문서철이 원본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익산향교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루겠다.

칠곡향교 자료 또한 개인소장 자료이다. 칠곡향교 배종찬 전교의 소장자료로,¹³ 문서 건수는 총 77건이다. 이 문서들은 전국에서 칠곡향교 앞으로 보내져 온 각종 통문, 통첩 등을 개인 누군가가 묶어서 『경도군통첩(京道郡通牒)』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주로 1920년대에 생산된 것들로 통문·통첩이 주류를 이룬다. 이 자료들은 일제강점기 각 유교 단체 간의 연락과 유림들의 명단인 청금록, 각종 문집류 등의 간행에 향교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1925년 이충무공전서간행위원회에서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의 중간 및 묘우(廟宇) 중수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을 칠곡향교 측에 요청하는 통문을 비롯하여 전국 유림들의 명단인 『조선청금록(朝鮮靑衿錄)』, 『성호문집』 등 각종 문집 발간, 「유림연합대회취지서」 등은 향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전개된 유림들의 각종 활동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함양향교 소장 자료는 6종의 문서철, 128건의 문서를 파악하였다.¹⁴ 석전과 분향례 등 향사에 관한 문서가 가장 많고, 1925년 경남교풍회 함양지부에서 발간한 『교풍회보(矯風會報)』 24호, 1933년에 조선유도회 총본부에서 간행한 『조선유교회창립선언서급헌장(朝鮮儒敎會創立宣言書及憲章)』 등의 문서가 다음을 차지한다. 『함양향약규칙서(咸陽鄉約規則書)』에 수록되어 있는 함양향약의 특징은 8가지의 부조(附條)가 첨부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외법령(畏法令), 근조부(謹租賦), 준실무(遵實務), 화부부(和夫婦), 근소송(謹訴訟), 색복장려(色服獎勵), 냉반준행(冷飯遵

12 익산향교 자료의 소장자이자 제공자는 전직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현재에도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지역사 연구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소장자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익산향교로 지역사료를 조사를 나갔다가 이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향교 관계자가 일제강점기 공문서철이라는 자료의 특성상 소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료를 소각하려고 한 것을 본인이 가지고 와서 현재까지 보관해오고 있다고 한다. 한편 권익산(2006)은 1937년~1944년에 생산된 익산향교의 『諸關係文書類』를 활용한 연구 성과이다.

13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는 2020년 2월 4일 성균관유도회 총본부와 학술교류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 자료는 당시 성균관유도회 예정수 회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이다. 당시 두 종류의 문서철을 제공받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경도군통첩(京道郡通牒)』이다.

14 전주대 HK+연구단에서는 1919년 8월 6일 함양향교 및 함양유도회 본부를 방문하고 자료조사를 시작했다. 두 번째의 자료 조사는 같은 해 10월 8일에 이루어졌고, 세 번째로 계획한 함양향교 소장 공문서철을 중심으로 한 추가 조사는 향교측 사정과 COVID-19사태로 3차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함양향교 소장 공문서류에 대해서는 서동일(2019) 참조.

行), 금사주(禁私酒) 규정으로 총독부의 ‘사회교화와 지방개량’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제강점기 향약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해향교에는 24건의 문서(2종의 문서철)가 소장되어 있다. 모두 향교건물 수리에 관한 것이다. 남해향교에서는 1917년과 1934년 두 차례에 걸쳐서 향교 건물에 대한 중수가 이루어졌는데, 이들 문서는 그때 작성된 것이다. 이 자료는 향교 중수 비용이 향교재산에서 조달된 것이 아니라 중수기성회, 교풍회 등의 지역 유림 단체나 지역 유지들에 의해서 조달되었음을 보여준다. 동래향교 소장 문서로는 27건의 문서(5종의 문서철)가 있다. 『명륜학교일사(明倫學校日史)』¹⁵는 1908년 5월 28일 부산에 설립된 사립학교인 명륜학교의 설립 과정과 수업 내용 등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 자료는 통감부시기 향교에서 주도한 근대학교 설립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사료이다. 춘천향교에서는 『춘천군향약교육회회원록』과 『춘천군향약계임원록(春川郡鄉約契任員錄)』 2건(1종의 문서철)의 문서를 확인하였다. 이들 문서는 1911년과 1920년에 작성된 것으로, 단체의 명단만 수록되어 있다.

이들 향교 소장 자료를 내용별로 재분류해 보면 향교운영 예산의 세입세출을 포함하여 향교 재산과 관련된 문건이 가장 많다. 총 637건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서 석전과 분향례 등 향교에서 거행된 유교 제례에 관한 문서가 541건으로 29.4%를 차지한다. 그리고 향교에서 활동하는 지역 유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모성계, 존성계, 경학계(經學契), 향약 등을 포함한 유림조직 관련 문서가 166건, 9.1%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직원과 장의 등 향교 운영의 실무담당자였던 구성원들의 명부인 『직원록』, 『경임안(經任案)』 그리고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기에 앞서 1936년 3월 ‘유림동향을 참고하는 데 크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총독부가 경학원을 통해서 전국 향교에 작성을 지시한 지역 유림 명부가 109건(6.0%)이다. 이외에도 향교수리에 관한 문서가 43건(2.6%), 향교규정 관련 문서가 33건(1.8%)이다. 향교규정 문서는 총독부의 지시를 받은 경학원에서 전국 향교에 내려 보낸 것들이다. 회의 관련 문서로는 장의회 등 향교에서 진행된 회의에 관한 것으로 33건(1.8%)이며, 강회 관련 문서가 7건(0.4%)의 순이다.

향교재산 관련 문서와 향사 관련 문서가 전체 소장 문서의 절반 이상인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일제강점기 향교 운영에 있어서 향교재산과 석전 등 유교제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3.2. 자료의 특징

여기에서는 기장향교 소장 자료와 익산향교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일제강점기 향교자료가 갖

15 『명륜학교일사(明倫學校日史)』는 장순순 외편(2020b: 231-306)에 번역되어 있다.

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64(12종의 문서철)건에 달하는 기장향교 문서는 생산시기가 통감부 시기인 1908년부터 1945년까지이다. 기장향교 소장 문서철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기장향교 관련 문서철

번호	문서철명	생산 시기	문서 건수
1	職員錄	1909~1944	13
2	時到記	1935~1945	10
3	大成殿修葺贊成錄	1921	2
4	議案	1916~1928	6
5	芳名錄	1937	1
6	圃隱先生豎碑時 扶助錄	1935	1
7	釋奠祭參齋錄	1908~1912	18
8	釋奠祭參齋錄	1912~1918	13
9	釋奠祭參齋錄	1920~1924	9
10	釋奠祭參齋錄	1925~1945	41
11	香案錄	1938~1945	15
12	土地臺帳 土地ノ部	1934~1949	135

명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 『직원록(職員錄)』은 1909년~1944년 7월에 이르기까지 기장향교 직원들의 임명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에 따르면, 1909년~1911년 기장향교 직원은 정인준(鄭寅準)이었으며, 1918년 기장향교 직원은 최상갑(崔翔甲), 장의는 문용호(文龍鎬) 외 3인이었다. 『시도기(時到記)』(1935)는 1935년에 세워진 포은 정몽주의 비석을 세울 당시 참여한 지역 유림들의 명단이다.

석전에 대해서는 1908년~1930년까지의 문서가 있으며,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거행되는 분향례 문서가 1938년~1945년 2월까지 남아있다. 중일전쟁 이후 총독부는 전국의 향교를 총동원하여 비상시국을 선전하고¹⁶ 석전과 분향례에서 중일전쟁에 참가하는 일본병사들의 무훈장구를 비는 서원문(誓願文)을 서고하는 서고식을 하였다.¹⁷ 향교에서의 서고식은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사전에 정신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기장향교의 『향안록(香案錄)』은 매월 삭망에 행한 분향례에 참여한 명단을 기록한 문서를 모아놓은 문서철이다. 이 문서들은 전시체제가 총독부의 조선인 전시동원과 지역에서 전개된 유림통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16 朝鮮日報, 1937년 8월 7일, 「各地文廟總動員 非常時局을 宣傳」; 1937년 8월 17일 「誓告式舉行」.

17 경학원은 1937년 9월 28일 대제학 명의로 전국 향교에 「서고문에 관한 건」을 배포하였는데, 석전에선 음복례 후 籩豆를 철수하기 전에 서고식을 행하도록 하였다(『益山文廟 諸關係書類(1937년)」總304호, 「誓告式에 關한 件」).

『재산대장, 토지의 부(財産臺帳 土地ノ部)』는 1934년부터 1945년까지 기장향교 토지의 소작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일제강점기 향교의 재산 운용을 파악하는데 유효하다. 『대성전 수증찬성록』은 1921년에 생산된 것으로 기장 향교의 대성전과 명륜당 등 향교 건물 중수에 관한 기록이다. 기장향교 회의록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의안(議案)』은 1938년~해방 후인 1959년까지 회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1938년 10월 15일에 있었던 회의록에서 “1946년(병술) 8월 5일 향의(鄉議)에 따라 본 장을 삭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방 후인 1946년에 회의록 가운데 일부가 향교 차원에서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의안』에서는 문묘 수리, 석전, 장의회 의장 선출에 관한 것 등이 기장향교의 주요 회의 안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장향교 문서가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면, 문서가 517건(27종의 문서철)에 달하는 익산향교 문서는 몇 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1934년 이후의 것이며 공문서라는 특징이 있다. 중앙의 경학원(총독부)과 지방 향교 간에 주고받은 왕복문서철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익산향교 문서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문서철을 표로 작성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익산향교 관련 문서철

번호	문서철명	생산 시기	문서 건수
1	직원장의명부 附有司小使名簿	1900~1945	4
2	例規	1935~1943	20
3	文書件名簿	1942~1943	1
4	諸關係書類	1916~1928	4
5	諸關係書類	1934	4
6	諸關係書類	1935	16
7	諸關係書類	1936	48
8	諸關係書類	1937	66
9	諸關係書類	1938	21
10	諸關係書類	1939	32
11	諸關係書類	1940	15
12	諸關係書類	1941	26
13	諸關係書類	1942	43
14	諸關係書類	1943	30
15	諸關係書類	1944	10
16	享祀關係書類	1942	22
17	享祀關係書類	1943	20
18	享祀關係書類	1944	27
19	鄉約關係書類	1935~1945	46

20	[모성계]契金收支簿加入願書綴并附	1925	7
21	[모성계]現金受拂簿	1926~1941	14
22	[모성계]契金貸借簿	1941	1
23	[모성계]입계신청서 및 지출영수증철	1943	12
24	[석전제]獻官及執事名簿	1935~1942	18
25	[모성계]契金貸借簿	1941	1
26	益山文廟登錄簿	1936	4
27	경학원 연혁 및 상황		2

문서철은 총 27종으로, 『직원·장의명부 부 유사·소사명부』는 향교의 주요 직책인 직원(해방 후는 전교로 바뀜)과 장의의 임면 사실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유사와 소사에 대해서도 함께 수록해 놓았다. 이 문서철은 1979년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통감부시기 향교 직원제가 성립한 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익산향교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한 인물들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예규』(1937년)는 중앙의 총독부 직속의 유교 기관인 경학원에서 지방 향교에 내려 보낸 규정 등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영구보존’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익산향교 중심이 되어 조직된 유림 조직인 모성계의 입계(入契)신청서와 입계 당시 일정한 금액의 돈을 내고 받은 영수증철(1942년~1943년), 모성계 기금의 운영 등 모성계 관련 문서철 5종(37건의 문서)은 익산향교의 유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유림단체인 모성계의 운영 실태를 보여준다. 모성계 자료는 1925년부터 1941년까지 남아 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제관계서류(諸關係書類)』로 1916년~1928년, 1934년~1944년에 생산된 것이다. 경학원과 익산향교, 익산군수와 익산향교 직원, 각 면장 및 읍장과 익산향교 직원, 익산군 장의회와 익산군수, 익산향교 직원과 주변 향교 직원 간에 오간 문서들을 정리한 제목 그대로 향교에 관한 다양한 공문서들을 묶어 철해 놓은 것이다. 전시체제기에 들어서면 주된 내용이 유림들의 전쟁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총독부의 지시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황군 위문금 각출상황 보고의 건」, 「황군 위문의 건」, 「시국인식 강연회 및 좌담회 상황 보고의 건」, 「선행자 표창의 건」, 「향약조사의 건」, 「국민정신 진작에 관한 건」, 「유림지도자 연성에 실시에 관한 건」 등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향사관계서류(享祀關係書類)』는 1935년~1945년까지 거행된 두 차례의 석전에 관한 문서를 철해 놓은 것이다. 석전에 참여하는 제관의 분정(分定) 및 작포(作脯)에 관한 사항, 석전 거행내용, 석전제 제물단자, 참여자 명단, 비용에 관한 문서 등이 정리되어 있다. 한편 『헌관 및 집사명부(獻官及執事名簿)』(1935년~1942년) 석전 참여 유림의 명부이다. 『향약관계서류(鄉約關係書類)』는 1935년부터 1945년 해방 직전까지 향약 모임에 관한 문서이다. 1935년에 제정된 「익산군의 산문묘향약규칙」과 「익산군향약실행세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1935년 춘계석전부터 1945

년 춘계석전까지 석전을 마친 후에 개최된 향약총회의 일시, 장소, 총회내용을 정리하여 익산향교 직원이 익산군수에게 총회 상황을 보고한 문서가 들어 있다.

익산향교 문서는 전체적으로 문서들이 완결성과 연속성이 높다는 점과 일제의 조선침탈이 극도에 달했던 1937년 중일전쟁을 전후해서 생산된 일련의 문서라는 점에서 전시체제가 일제의 지방유림에 대한 통제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실상을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현전하는 조선후기 향교 자료는 주로 유림들의 명단인 교안류(校案類), 교임류(校任類), 향안류(鄉案類), 향교재산과 관련한 향교전답이나 노비안(奴婢案), 통문 등의 고문서이다.¹⁸ 대부분이 지역 유림들의 명단이거나 향교 직원 명단, 향교재산과 관련한 자료이고, 공문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후기 향교 자료는 향교가 지방 유림들의 집결장소이자 향론(鄉論)을 주도하는 중심처로 기능한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향교소장 일제강점기 자료는 경임안이나 청금록 등 유림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명부류도 여전히 작성되었지만, 관 간, 즉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중앙기관과 향교 간, 지방 관리와 지방향교 직원 간에 오간 공문서류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4. 향후 과제와 방향

‘근대’ 혹은 ‘일제강점기’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향교소장 자료의 목록집이나 자료집이 없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교소장 일제강점기 문서 자료는 정리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향교 소장 ‘근대’ 혹은 ‘일제강점기’ 문서 자료의 조사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제강점기 향교 자료 조사는 대단히 미흡하여 전국 향교에 소장된 근대자료의 전체적인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 속에서 본 장에서는 향교소장 문헌자료의 조사 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근대, 특히 일제강점기 향교자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 향교 자료는 대부분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생산된 것이어서 후세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자료로 인식하기보다는 자료를 드러내는 것이 마치 공동체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마냥 너무나 불편한 자료로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다수의 연구자들이 주도해 온 각종 지역 조사 및 고문헌 조사에서 근대 향교자료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도

1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1992), 慶北鄉校資料集成 I·II·III에서는 경북지방 향교소장 고문서를 校案類, 校任類, 鄉案類, 전답·奴婢案, 고문서, 기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어느 향교엔가 소장되어 있을 자료들은 이러한 인식 때문에 망실의 위험에 직면해 있을 지도 모른다.

앞에서 소개한 익산향교 자료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익산향교 자료는 그 가치에 주목한 ‘귀인’을 만나 다행히도 멸실의 위기를 모면하여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지만, 돌산향교 소장자료의 경우는 상당한 양의 문서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여수시·조선대학교 박물관(2000), *여수시의 문화유적*, 357쪽에는 돌산향교의 소장자료로 ① 고문서류에는 1899년(광무 3)에 제작된 「향안(鄉案)」 1책을 비롯하여 19종, ② 잡철류에는 「소화8년(1933) 군면왕복서류철(郡面往復書類綴)」 1책을 비롯하여 12종의 일제 강점기 돌산향교와 관청 및 각면 간 왕래문서류철이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자료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돌산향교에 소장된 자료는 향교가 한말에 창건된 관계로 다른 향교에 비해 고문서류가 많지 않다.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문묘청안(文廟淸案)과 향안 등은 대한제국시기부터 일제시기에 이르기까지 해빈낙도(海濱落島)지방의 유림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요한 자료가 된다. 『여산지보유(廬山志補遺)』에 실려있는 「향교위결기지경사실(鄉校位結基址結事實)(1899-1900)」은 향교의 재정·운영 실태를 규명하는 데 좋은 자료이다. 특히 서고에 잡철 뭉치로 미분류 보관되어 있는 각 관서(官署) 및 군면왕복 문서류철은 1933년(昭和 8)부터 1938년(昭和 13)까지 향교와 관청 사이에 왕래한 문서로 일제시기 향교의 기능과 유림의 동태 및 일제가 지방향교조직을 어떻게 악용했는가의 사례를 알아보는 데 귀중한 사료들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군에서 향교에 문묘제사용 주류 제조 면허증을 발급해준 대신 석전 때 내무과장이 총독의 소위 유고(諭告)를 강연하다거나, 삭발 흑의(削髮黑衣)의 유림에게만 선진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북구주(北九州)의 여러 지방을 시찰시킨다든지, 또 중일전쟁 때 유림의 조직을 동원하여 원정황군장사위문(遠征皇軍將士慰問)이나 국방헌금(國防獻金) 등을 강요한 내용 등이다. 물론 이 시기 다른 지방에서도 이런 일이 자행되었으나 돌산향교에 보존되어 있는 공문서류철은 그 사실을 실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여수시·조선대학교 박물관 2000: 357-358).”

그런데 전주대 HK+연구단에서 2019년 6월 13일 돌산향교를 방문했을 때는 이 문서들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위 인용문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사료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서들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¹⁹ 돌산향교의 사례는 오늘날 향교소장 일제강점기 자료가 처해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19 전주대 HK+연구단에서는 돌산향교 관계자와 당시 조사를 했던 분들을 통해서 위 자료들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으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부안향교의 경우는 전교와 총무로부터(2019년 5월 25일) 3차례의 도난으로 향교 소장 자료 대부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둘째, 지금까지 지역조사를 통해 발간된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보고서나 *경북향교자료집*성과 같은 자료집 등을 통한 기존 자료의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²⁰ 그리고 전국 향교를 대상으로 한 소장자료의 전수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 조사는 단편적이고 간헐적인 조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조사가 하루빨리 수행되어 DB가 구축되고, 관련 기초목록 및 자료를 소개한 해제집과 자료집 등의 발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자료수집에 있어서 공간 및 조사 대상의 범주를 확대가 요구된다. 향교를 방문해 조사하다보면 몇몇 향교를 제외하고는 변변한 서고(書庫)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가 방치된 경우가 많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료의 출납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전교 등 향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향교자료를 빌려갔다가 반납하지 않고 개인이 임의로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중에는 빌려간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의 상황으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하지 못해서 해당 향교 소장 문서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향교로서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교문서를 조사할 때에는 향교라는 공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교, 장의, 재무, 유사 등 과거에 향교직에 종사하면서 활동했던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한 자료 수집 및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교만이 아니라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의 조사도 필요하다.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던 자료의 가치를 알아보는 연구자의 눈에 띄어 대학 박물관 등에 정리되지 않은 채 상자 속에 잠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향교소장 자료의 보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수의 향교를 제외하고 각 향

2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1992)에서 편찬한 *慶北鄕校資料集成*에 따르면, 경주향교에 1908~1920년에 이르는 各公文編纂綴(帖諭, 訓令, 通牒 류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慈仁鄕校에는 1923~1945년에 작성된 靑衿錄이, 영양향교에는 「校位田畵案」(1907), 通文, 下帖류가, 眞寶鄕校에는 「遞任錄」(1902~1971), 예안향교에는 「鄕會錄」(1902), 풍기향교에는 「額案」(1901~1912), 함창향교에는 「청금록」(1904~1944), 문경향교에는 「文廟義慕錄」(1915), 향교수선록(1903~1933), 龍宮鄕校에는 「執事錄」(1802~1920), 比安鄕校에 「鄕校事例」(1903), 高靈鄕校에 「高靈鄕約案」(1931), 「고령향약임원록」(1931) 등 근대 향교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목포대학교박물관(2005),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Ⅱ에는 해남향교에는 「문묘모성계책」(1943~1983), 「선생안」(1908), 「院任案」(1933), 「海南誌」(1925), 무안향교에는 「明倫學校贊成錄」(1909), 「孔夫子聖蹟圖」(1904), 「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1921), 「續修錦城誌」(1925), 「全南道靑衿案」(1921), 완도향교에 「鄕校願助案」(1900, 1904), 「향교유림안」(1940), 「春秋釋奠祭官案」(1936), 「每釋奠祭官及執事案」(1936~2004), 「土地所有權登記濟證綴」(1928~1969), 「鄕校事例冊」(1904, 1904년 이후), 「鄕案」(1903), 「續修鄕案」(1943),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1921), 「孔夫子淵源儒林錄」(1921), 「魯城關里誌」(1933), 「私益銘鑑」(1931), 「續修聖蹟圖後學錄」(1920), 「全羅南道靑衿案」(1921), 진도향교에 「釋奠祭官錄」(1921, 1941), 「行公案」(1914), 「表彰錄」(1933), 지도향교에 「慕聖儒案」(1919), 「乙亥八月日釋奠祭物品記」(1935), 「釋奠祭事例冊」(1925, 1939), 「유림명부」(1942), 「儒林會員基本金收入簿」(1942), 「儒案」(1903년 이후), 「지도향교청금록」(1903), 「청금안」(1929), 「전남도청금안」(1921), 「智島校宮存案」(1917, 1918), 「智島郡邑誌」(1908년)가 조사되어 있다.

교의 생산 문서 및 자료 소장 상황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변변한 서고조차 마련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그나마 남아있는 자료도 방치되어 있거나 자료의 출납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 소장 자료 뿐 아니라 훗날 중요한 사료가 될 향교생산 문서의 보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향교관계자들에게도 근대 향교자료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지방 자치단체나 중앙 기관 차원에서도 자료의 보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학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향교소장 근대자료는 조선후기 고문서류와는 달리 중앙관청과 지방행정기관, 향교 사이에 오고간 행정문서, 즉 공문서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대문서만의 정리방식과 보관방식도 고민해보아야 과제이다.

5. 맺음말

이상을 통해서 향교소장 일제강점기 문헌자료의 조사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234개의 향교가 존재하며, 향교는 현재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유교문화의 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향교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작동되는 유교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향교에 관한 선행 연구는 조선후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현재 한국의 유교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대, 특히 일제강점기의 향교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적은 편이다. 가장 큰 이유는 관련 자료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유교 및 유교문화, 향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향교자료의 시급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일제강점기 문서자료는 총 1,805건의 문서(73종의 문서철)이다. 먼저, 강릉향교에서는 3권의 문서철, 204건의 문서가 확인되었다. 강릉향교 소장 문서는 석전 즉 향사에 관한 문서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기장향교는 향교재산문서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12개의 문서철, 247건의 근대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돌산향교 소장 문서에는 172건의 문서(14종의 문서철)가 있는데, 명부류 및 계와 관련된 다양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순천향교에는 향교재산 관련 문서가 주로 남아 있다. 2종의 문서철 410건의 문서이다. 410건 가운데 406건이 향교답을 소작하는 소작인들과의 계약관계를 기록해 놓은 소작료 실지조사부이다. 26종의 문서철, 514건의 문서로 이뤄진 익산향교 관련 문서는 익산향교 자료는 문서철의 수뿐만 아니라 문서 성격의 다양성, 특히 중앙의 경학원(총독부)과 지방 향교 간에 주고받은 왕복문서철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칠곡향교 관련 문서는 총 77건이

다. 이 문서들은 주로 1920년대에 생산된 것들로 통문·통첩이 주류를 이룬다. 함양향교 소장 문서는 128건(6종의 문서철)이다. 석전과 분향례 등 향사에 관한 문서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남해향교에는 24건의 문서(2종의 문서철)가 소장되어 있다. 모두 향교건물 수리에 관한 것이다. 동래향교 소장 문서로는 27건의 문서(5종의 문서철)가 있다. 『명륜학교일사(明倫學校日史)』는 1908년 5월 28일 부산에 설립된 사립학교인 명륜학교의 설립 과정과 수업 내용 등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 자료는 통감부시기 향교에서 주도한 근대학교 설립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사료이다. 춘천향교에서는 2건(1종의 문서철)의 문서를 확인하였다. 이들 문서는 1911년과 1920년에 작성된 것이다.

이들 향교 소장 자료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향교운영 예산의 세입세출을 포함하여 향교재산과 관련된 문건이 가장 많다. 총 637건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서 석전과 분향례 등 향교에서 거행된 유교 제례에 관한 문서가 541건으로 29.4%를 차지한다. 향교재산 관련 문서와 향사 관련 문서가 전체 소장 문서의 절반 이상인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일제강점기 향교 운영에 있어서 향교재산과 석전 등 유교제례가 가장 중요한 관심 사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향교에서 활동하는 지역 유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각종 계와 향약 등 포함한 유림 조직 관련 문서가 166건, 9.1%를 차지하였다. 『직원록』, 『경임안』을 비롯하여 총독부가 경학원을 통해 작성을 지시한 유림 명부가 109건(6.0%)이다. 이외에도 향교수리에 관한 문서가 43건(2.6%), 향교규정 관련 문서가 33건(1.8%)이다. 향교 규정문서는 총독부의 지시를 받은 경학원에서 전국 향교에 내려 보낸 것들이다. 회의 관련 문서로는 장의회 등 향교에서 진행된 회의에 관한 것으로 33건(1.8%)이며, 강회 관련 문서가 7건(0.4%)이다.

일제강점기 향교 자료 중에는 조선후기 향교 자료와 마찬가지로 향교재산관련 문서와 유림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명부류가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관 간, 즉 중앙기관과 지방향교 간에, 지방 관리와 지방향교 직원 간에 오간 행정문서, 즉 공문서류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은 중요한 특징이다. 이들 공문서에는 일제가 향교를 통해 지방유림을 통제하여 식민통치에 활용하려 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향교 자료 조사는 대단히 미흡하여 전국 향교에 소장된 근대 자료의 전체적인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역사적 사료로서 향교자료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근대 향교자료는 대부분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생산된 것이어서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하는 인식 틀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사료로서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과거에 수행된 지역조사를 통해 발간된 각종 보고서나 자료집 등에서 파편으로나마 조사되었던 자료의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국 향교를 대상으로 한 소장 자료의

전수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DB가 구축되고, 관련 기초목록 및 자료를 소개한 해제집과 자료집 등의 발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자료수집에 있어서 공간 및 조사 대상의 범주를 확대가 요구된다. 향교문서를 조사할 때에는 향교라는 공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교, 장의, 재무, 유사 등 향교에서 활동했던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한 자료 수집 및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교만이 아니라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의 조사도 필요하다.

넷째, 향교소장 자료의 보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근대 향교자료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지방 자치단체나 중앙 차원에서도 자료의 보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우리 학계에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향교소장 근대자료는 조선후기 고문서류와는 달리 중앙관청과 지방행정기관, 향교 사이에 오고간 공문서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대문서만의 정리방식과 보관방식도 고민해보아야 과제이다.

본 연구가 10개소의 향교소장 자료로 한정되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본 연구가 자료 수집의 완결성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도 인정한다. 이러한 한계는 앞으로 지속적인 향교소장 자료 조사를 통하여 향후 보완할 예정임을 밝히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經學院雜誌, 『益山文廟 例規』, 『益山文廟 諸關係書類』(1937), 『官報』(대한제국).
朝鮮總督府官報,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村山智順(1938), 釋奠·祈雨·安宅(『韓國近代 民俗·人類學資料大系』 7, 民俗苑, 2008).
조선총독부학무국(1924). 地方文廟一覽.
강대민(1992). 한국의 향교연구, 경성대출판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1992). 慶北鄉校資料集成 I ~ III, 嶺南大學校出版部.
김명우(2008). “日帝 植民地時期 鄉校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욱재(2009). “한말·일제하 유림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여수시·조선대학교 박물관(2000). 여수시의 문화유적.
전라남도·목포대학교박물관(2005).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Ⅱ.
성균관(2018). 儒林手帖, 성균관출판부.
장순순 외 편(2020a). 일제강점기 중앙기관의 향교관계 문서·기사목록, 도서출판 선인.
_____ (2020b). 일제강점기 향교관계 목록과 주요 자료, 도서출판 선인.

www.kci.go.kr

- 권익산(2006). “日帝强占期 益山郷校 研究”, *靑藍史學* 13.
- 김정인(2006). “일제강점기 향교(郷校)의 변동 추이 - 郷校 재산 관련 공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김순석(2014). “일제강점기 「향교재산관리규칙」 연구”, *泰東古典研究* 33,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 김영희(2008). “일제강점기 경학원 석전(釋奠)의 변화 양상 소고”, *한국무용사학* 8, 무용역사기록학회.
- 류미나(2005). “식민지권력예의 ‘협력’과 좌절-經學院과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_____(2007).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유림정책”, *역사와 현실* 63, 한국역사연구회.
- _____(2007). “일본 ‘국민도덕론’의 유입과 재생산-1910년대~1920년대 경학원 활동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52,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_____(2010a). “19C말~20세기 초 일본제국주의의 유교 이용과 조선 지배”, *동양사학연구* 111, 동양사학회.
- _____(2010b). “일본의 ‘공자묘 대중화’ 정책과 조선 내 공자묘 인식의 변화-총독부의 공자묘 개방정책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4.
- _____(2019). “조선의 ‘황도유학’ 전개 과정과 일본제국주의의 확장”, *한일관계사연구* 63, 한일관계사학회.
- 서동일(2019). “식민지기 유림대회의 출현과 지방의 유교권력”, *역사학보* 24, 역사학회.
- _____(2019). “함양향교 소장문서에 나타난 총동원체제기 조선총독부의 향교 동원과 변형”, *국학연구* 40.
- 이명화(1993). “조선총독부의 유교정책(1910~1920년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 장재천(2011). “조선 성균관 석전의례악의 본질과 교화적 기능”, *人文社會科學研究* 18.
- 장진영(2014). “일제강점기 釋奠의 변질과 해방 후의 規正”, *고전과 해석* 17,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 장순준(2020). “석전의 상징체계와 향교 석전의 식민지적 변용”, *태동고전연구* 45.
- 정경주(1990). “한말 향교유림집단의 역사적 성격”, *어문학교육* 12, 한국어문교육학회.
- 정육재(2014). “20세기초 일제협력유림의 경학원 활동”, *한국사학보* 56, 고려사학회.
- _____(2016). “1920년대 조선유림과 일본의 湯道聖堂”, *민족문화연구* 71.
- 정일균(2007). “일제의 무단통치와 경학원”, *사회와 역사* 76, 한국사회사학회.

【국문소록】

본 연구는 오늘날 향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문헌 자료에 대한 조사 현황을 살펴보고, 자료의 특징과 향후 자료보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제강점기 향교 자료는 조선후기 향교 자료와 마찬가지로 향교재산관련 문서와 유림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명부류도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관 간, 즉 중앙기관과 지방 향교 간, 지방 관리와 지방향교 직원(直貢)에 오간 공문서류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은 중요한 특징이다. 이들 공문서는 일제가 지방유림을 식민통치에 어떻게 활용하고 통제했는지에 대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향교소장 근대 문헌자료의 조사와 보존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근대 향교자료는 대부분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생산된 것이어서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하는 인식 틀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사료로서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과거에 수행된 지역조사를 통해 발간된 각종 보고서나 자료집 등에서 과편적으로나마 조사된 자료의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국 향교를 대상으로 한 소장자료의 전수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DB가 구축되고, 관련 기초목록 및 자료를 소개한 해제집과 자료집 등의 발간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자료수집에 있어서 공간 및 조사 대상의 범주를 확대가 요구된다. 향교문서를 조사할 때에는 향교라는 공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교, 장의, 재무, 유사 등 향교에서 활동했던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한 자료 수집 및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교만이 아니라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의 조사도 필요하다.

넷째, 향교소장 자료의 보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근대 향교자료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지방 자치단체나 중앙 차원에서도 자료의 보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우리 학계에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향교, 일제강점기, 향교 유림, 문헌자료, 자료의 수집

【ABSTRACT】

Literature Data of Japanese Colonial Era at Hyanggyo : Current Status and Tasks

CHANG Soonsoon (Jeon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on literature data from Japanese colonial era at Hyanggyo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www.kci.go.kr

data and explore ways to preserve it in the future. The data of Hyanggyo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not only include documents related to the property of Hyanggyo and a list of Hyanggyo scholars. There are also many official documents that have been exchanged between the staff at the central institution and local Hyanggyo as well as between local officials and local Hyanggyo. These official documents are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since they contain the specific facts on how Imperial Japan used and controlled local Hyanggyo in its colonial rule.

To investigate and preserve the modern literature of the Hyanggyo, it is first necessary to approach modern Hyanggyo materials as an objective source of history and not as documents produced in the context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Seco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data that has been partially investigated in various reports and data collections published in the past. In addition, a nationwide inspection of the collection of materials for Hyanggyo should be urgently conducted, DB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release of books and materials introducing related data should be published.

Third, the expansion of the area and categories of subjects of investigation is required. When investigating documents related to Hyanggyo, it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space” of Hyanggyo. Data should also be investigated through contact with people who were active in Hyanggyo. It is also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materials stored in museums and other places.

Lastly, the preservation of the materials of Hyanggyo is needed.

Keywords : Hyanggyo, Japanese colonial era, Hyanggyo scholars, Literature data, collection of materials